

법치구현을 위한 정론지를 향하여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금년 6월호(통권 784호)로써 창간 6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67년 동안 月刊『考試界』를 변함없이 애독해 주시는 수많은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의 끝머리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화두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명제는 단 하나뿐이다. “현재의 코로나19 시대보다 훨씬 더 험난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月刊『考試界』를 사랑하는 애독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상을 되찾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5월 9일 밤 12시 종료되었고, 문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통합 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행정·사법부에 걸친 무분별한 코드·지역인사 등으로 임기 막판까지 국민을 극도로 분열시킨 것을 비롯해, 시장경제를 왜곡한 소득주도성장,

매국적이라고 할 만큼 국익을 훼손한 탈원전, 대다수 국민을 괴롭힌 주택정책, 무차별 현금살포와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마치 친일 잔재인 것처럼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과 한강의 기적 같은 과거 성취를 부정하였다. 엄청난 국가부채는 청년세대로 떠넘기면서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번듯한 청년일자리를 없애 미래의 발목을 잡았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퇴행시킨 정권은 없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한다.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편 네편으로 갈려 서로 혈뜬는 자해 국가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뛰는 통합국가의 초석을 닦길 바란다.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미디어북 대표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 지원의장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결국 '윤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지만 야당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직한 리더십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다.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 공생이 아닌 상생적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늘 중도의 민심을 헤아리는 게 그 길을 찾는 방안이다. 국민신망을 얻는 것도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순식간이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기대한다.

임기 종료 며칠 전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수의식의 입법권을 동원해 일부 범죄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권마저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부터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 건국 후 70여년 간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여당 혼자서 3주만에 뒤바꾸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다수결이란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인데, 그 혼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강행처리되는 법률이 정당성을 가질 순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 박탈은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마치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통해 검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데자뷔(Deja-vu)를 보는 듯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 검찰을 폐지한 결과가 참담했던 것처럼, 검수완박의 종착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원래 로스쿨 도입취지와 다르게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이다.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제11회 변

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서울대 1위, 고려대 2위),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6년 새 30%가 줄어 저소득층 학생 합격률이 급감하여 로스쿨이 ‘돈스쿨’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사교육을 받은 고소득층 자녀가 상위권대학에 진학하여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가고 있는 처지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

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 exam)’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시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기업이 100마일의 속도로 변할 때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법과 법조계는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빨리 변화하여서도 안 되지만, 변화가 너무 더디어 다른 분야와 충돌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月刊『考試界』도 발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月刊『考試界』는 6월호(통권 784호)를 발행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법치구현을 위한 정론을 세우기 위해 일어난 창간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격변하는 법조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月刊『考試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한다.